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기의 경험은 물론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외부 세계의 일반적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념 등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여, 자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경우이다. 셋째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이다.

문학적 의미 생성의 이러한 세 가지 양상은 문학 작품에서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첫째와 둘째의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와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셋째의 경우는 자기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 거리가 드러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기도 한다.

(나)

**산슈 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ᄒᆞ니

그 모론 **ᄂᆞ들**은 욷ᄂᆞ다 ᄒᆞ다마ᄂᆞ

㉠ 어리고 햐암의 뜻의ᄂᆞᆫ 내 분(分)인가 ᄒᆞ노라

<제1수>

보리밥 픗ᄂᆞᄆᆞᆯ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횟 긋 믉ᄀᆞ**의 슬ᄏᆞ지 노니노라

그 나믄 **녀나믄 일이야** 부ᄅᆞᆯ 줄이 이시랴

<제2수>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뫼**흘 ᄇᆞ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옴**이 이리ᄒᆞ랴

말ᄉᆞ도 우움도 아녀도 몯내 됴하ᄒᆞ노라

<제3수>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 ᄒᆞ더니 **만승**(萬乘)이 이만ᄒᆞ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ㅣ 냑돗더라

아마도 **님쳔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내 셩이 게으르더니 하ᄂᆞ히 아ᄅᆞ실샤

인간 만ᄉᆞ(人間萬事)ᄅᆞᆯ ᄒᆞᆫ 일도 아니 맛뎌

다만당 ᄃᆞ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딕희라 ᄒᆞ시도다

<제5수>

**강산**이 됴타 ᄒᆞᆫᄃᆞᆯ 내 분(分)으로 누얻ᄂᆞ냐

**님군 은혜**(恩惠)ᄅᆞᆯ 이제 더옥 아노이다

아므리 갑고쟈 ᄒᆞ야도 ᄒᆡ올 일이 업세라

<제6수>

- 윤선도, 만흥(漫興) -

(다)

산림(山林)에 살면서 명리(名利)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끄러움[大恥]이다. 시정(市井)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부끄러움[小恥]이다. 산림에 살면서 은거(隱居)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大樂]이다.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즐거움[小樂]이다.

작은 즐거움이든 큰 즐거움이든 나에게는 그것이 다 즐거움이며, 작은 부끄러움이든 큰 부끄러움이든 나에게는 그것이 다 부끄러움이다. 그런데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百)에 반이요, 작은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에 백이며, 큰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서넛쯤 되고,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하나 있거나 아주 없거나 하니, 참으로 가장 높은 것은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이다.

나는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자이니, 그렇다면 이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으로 말한 ㉡ 나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물정 모르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 이덕무, 「우언(迂言)」 -